

“구민과 함께 현안 해결...사람 중심 자치시대 열겠다”

민선 7기 구상 듣는다 서대석 서구청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 자치시대를 만들어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서구를 열겠습니다.”

24일 민선 서대석(57)서구청장은 “선거로 인해 갈라진 구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소통하는 구청장,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 23년 만에 관료 출신이 아닌 첫 정치인 출신 서구청장으로 민선 7기 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 삼수 만에 31만 서구민의 선택을 받았다.

서 청장은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믿고 지지 해준 구민 여러분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견을 잘 청취하면서 지혜롭게 구정을 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청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서구민들이 그동안 관료출신 구청장에게 느꼈던 아쉬운 점들은 보완하고 좋은 점은 받아들여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자치구로 만들겠다

중앙공원 난개발 최소화...공공 일자리 확대 “군공항 이전하고 새 ‘영산강 시대’ 열어야”

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 청와대와 국회 활동으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구의 현안 사업을 잘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선 7기 구정 목표로는 ▲시민이 주인 든든한 지방정부 ▲숨쉬는 친환경 안전도시 ▲삶이 있는 배움문화도시 ▲삶을 책임지는 건강복지도시 ▲소통으로 하나되는 상생도시 등을 제시했다.

서 청장은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사람 중심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 든든한 지방 자치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구에는 고질적인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서구민의 일이 아니라 광주시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광주시와 중앙부처에 협력 구하고 설득해 현안을 풀어야

겠습니다.” 서 청장은 서구의 최대현안으로 중앙공원 보존과 마북동 공군 탄약고, 청년실업 문제 등을 꼽았다.

서 청장은 “광주시는 중앙공원 면적의 9.27%를 개발하고 나머지 90.73%는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서 “공원 개발사업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 세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청장은 “마북동 공군 탄약고 부지 개발 문제는 광주공항 이전과 연계되어 있다”면서 “민항기와 군공항이 한꺼번에 이전해 서창, 대촌, 나주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신(新) 영산강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한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정부 일자리 위원회등과 연결망을 구축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사

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정보센터와 청년 기술 창업 플랫폼인 제2의 I-PLEX 설립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창업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서 청장은 전남대학교 재학시절 광주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인 들불야학 강좌(講學) 활동, 5·18민중항쟁 당시 고(故)윤상열 열사 등과 함께 투사회보를 제작·배포했다.

그때부터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꿔 보겠다는 꿈을 키웠고, 정치쪽으로 발걸음을 내딛은 서 청장은 고(故)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의원 비서관, 광주 서구의회 전문위원, 전남대병원 상임감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서 청장은 “아동과 여성 모두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여성 정책을 추진해 아동과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 남녀 차별 없는 서구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글=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사진=최해빈 기자 choi@kwangju.co.kr



한국, 댐붕괴 라오스에 구호대 파견키로 한국 기업이 공사에 참여한 라오스 댐의 유실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태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를 긴급적 조속히 현지로 파견하기로 했다.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대형 수력발전댐 보조댐 사고 피해와 관련, 사망자가 최소 70명이라는 인접국 베트남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

‘돈으로 성추문 막자’ 트럼프 육성녹음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와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대책을 논의하는 듯한 육성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공개됐다.

공개된 육성 대화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성인잡지 모델과의 혼외정사 보도를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도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플레이보이’ 모델 캐린 맥두걸과의 성추문을 무마하려고 돈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모델 캐린 맥두걸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0일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논의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존재하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 CNN이 녹음 내용을 직접 방송한 것이다.

대선 두 달 전 녹음된 이 테이프는 미국의 연예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회사인 ‘아메리칸 미디어’(AMI)가 맥두걸에게 15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주고 맥두걸과 트럼프 당시 대선후보의 스캔들을 독점 보도할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인 데 관한 트럼프 대통령과 코언 변호사의 대화를 담고 있다. 코언 변호사는 테이프에서 “우리 친구인 데이비드에 관해 이 모든 정보를 옮겨오기 위해 회사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MI의 최고경영자인 데이비드 페커로부터 스캔들 독점 보도권을 사오기 위한 자금을 댈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이번 녹음 공개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런 논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궁지에 몰리게 됐다. /연합뉴스

일본 최저임금 3% 인상...도쿄 9987원

일본이 올해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3% 올리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지난해 848엔보다 3%인 26엔(약 263원) 늘어난 874엔(886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2년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는 현

재 방식을 채택한 이후 최대 폭이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최저임금 기준액을 정하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이 지역 내 사업장에 적용할 별도 최저임금을 정한다.

향후 지방의회가 정부 기준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도쿄는 985엔(약 9987원)이 돼 이르면 내년도에는 1000엔(약 1만139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중 경제성장률 6.6% 전망”

무역전쟁의 확산과 피해 우려에도 올해 중국 경제가 예상됐던 성장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통신이 62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예상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앙값은 6.6%였다.

이는 전월의 전망치 6.5%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이고, 중국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계약서 많이 써서 꼭 돈벌어야 하는 분!
열정이 남다른 중개사님, 실장님!
딱! 세분만 모십니다.

(주)가은부동산 중개법인
연락처 010-2800-3589

